

미국 가정학의 Extension Service 동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 외 숙

I. 머리말

미국에서 발달된 가정학 전공자의 활동영역의 하나로서 보급활동(extension)을 들 수 있다. 보급활동은 연구에 기반 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교육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보급활동은 1914년 스미스-레버법(The Smith-Lever Act) 이래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가정학은 보급활동 초기부터 중요한 전문분야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 보급활동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보급활동을 위한 조직과 예산,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의 예를 통하여 가족자원관리학 전공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미국의 보급활동이 주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급활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주의 하나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기로 한다.

2. 역사적 배경

미국의 보급활동은 공식적으로는 1914년 Smith-Lever 법의 통과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그것보다 훨씬 깊다. 미국 Cooperative Extension System(CES)의 기원은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2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Morrill Act(Land-Grant Bill로 많이 알려져 있음)는 1100만 에이크의 공유지를 “산업계층에게 교양 및 실용교육을 장려”하도록 기부하여 새로운 농과대학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1887년의 Hatch Act는 국유지무상교부대학의 연구소(experiment station)를 위하여 \$15,000를 지출승인 하도록 규정했으며, 1890년의 개정 모릴법에 의하여 남부에서 흑인전통의 국유지무상교부대

학이 설립되었다. 이들 세 법안이 노동계층 미국인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보다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800년대에 이미 비공식적인 농업교육이 행해졌으며, 다양한 농업조직들이 연구소에서의 연구결과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농학 및 가정학 교사들이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했다.

이렇게 보급활동이 증가하고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요구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14년에 통과된 스미스-레버법은 보급활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무성과 국유지무상교부대학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이 활동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보급활동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CES의 목적은 농학 및 가정학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미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이었다. 스미스-레버법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협조관계가 조성되고 지방자치단체(county)로부터도 지원을 받으면서 보급활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제1차대전 기간 중 보급활동이 특별히 활발하였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보급활동이 급격하게 발달하였다. 전쟁 후에는 농업 디플레이션으로 “농업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 많은 보급활동 전문가들이 주로 농부와 일대일로 접하면서 효율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보급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보급활동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게 되었다. 그후 점차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보급활동이 개별적으로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하이오주(Ohio State)의 경우 미국의 보급활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05년에 4-H Club의 전신인 boy's and girl's club이 이 주에서 설립되었으며, 이 일을 담당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교사 Albert B. Graham이 미국 내에서 최초로 보급활동분야의 직책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농업가정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Domestic Sciences)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오하이오주 최초의 가정학분야 보급활동은 1909년에 이루어졌다. 당시에

는 Home Demonstration Agent로 불린 보급활동 전문가 C. W. Foulk가 30명이 등록된 단기과정의 교육을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실시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주는 오늘날에도 미국의 보급활동을 선도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National Leadership Assessment Center를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개설하여 이 분야의 행정 및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보급활동전문가들의 연례발표에서도 이 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하이오주 보급활동의 웹사이트 "ohioline"(<http://ohioline.ag.ohio-state.edu>)에는 한달 평균 약 2백만회의 접속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 웹사이트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접속건수이다. 보급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잡지가 Journal of Extension(<http://www.joe.org>)인데, 이 잡지에 게재되는 논문수에 있어서도 오하이오주 관계자들의 비중이 높다.

3. 조직 및 예산

미국의 보급활동조직은 국유지무상교부대학과 농업연구소를 연방 및 지방 정부와 연계한 독특한 삼자 구성체를 이루고 있다.

미국 보급활동을 위한 연방 조직은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 <http://www.reeusda.gov>)이다. 이 조직은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와 Extension Service가 통합된 기관으로서, 연방정부 수준에서 보급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박사인 National Program Leader(NPL)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주를 지원한다.

보급활동조직의 주 파트너는 주, 준주(Territory) 및 DC에 있는 국유지무상교부대학 등에 설치되어 있다. 주 Extension Service 조직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지만 모두 주요 프로그램 영역에 특정된 직원을 가지고 있다. 보급활동의 주 프로그램에 리더십을 제공하는 State Extension Specialist는 대부분 대학 학과의 구성원으로 보급활동 외에 대학의 연구와 (또는) 교육 책임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오하이오주의 경우를 보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The 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이 있어서 연방정부와 이 주의 각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연구소(The Ohio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OARDC)를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the College of F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Biological Sciences; Human Ecology; Veterinary Medicine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경영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4개 주요대학의 학과에는 State Extension Specialist라고 불리는 교수들이 소속되어 보급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각 대학 Extension Office에 소속되어 있는 Extension Associate들의 도움을 받는다.

직접 주민을 상대로 보급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바로 지방자치단체(County)에 있는 Extension Office이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한명의 Extension Agent (또는 Extension Educator)가 미국의 3,0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다. Extension Agent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보통 석사학위가 필요하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최근 학사학위소지자도 Extension Agent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석사학위가 없을 경우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보조원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직이 사무실 피고용자의 2/3를 차지한다.

보급활동 전문가들은 전문영역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데 가정학 분야의 조직은 National Extensio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NEAFCS: <http://www.neafcs.org>)로서, 이를 통하여 이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외에 모든 분야의 보급활동 전문가를 위한 잡지 Journal of Extension(JOE)이 인터넷으로 출판되고 있다. 비디오 잡지 Partners on the Web(<http://www.reeusda.gov/partners>)도 발행되어 이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 전자잡지는 인공위성으로 방영되기도 한다.

보급활동을 위한 예산은 Cooperative Extension System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으로부터 제공된다. 미국 전체로 볼 때 연방재정은 보급활동을 위한 비용

의 30% 미만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되는데, 대부분 주정부가 주요 자금원이 된다. 점차 공공자금은 비영리기관 및 사설기관, 그리고 정부의 다른 부처의 부가적인 기금을 취득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주에 따라 예산의 출처나 지출의 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 오하이오주립대학의 경우 1999년 지출액은 \$57,885,032(66,000,513,000원/2000. 10. 19 환율 기준)이었다. 그 수입출처를 보면 41%는 주예산이고, 연방예산은 단지 20%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 1999년의 경우 약 30%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부금도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며, 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의 80%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1,500여명의 인건비이고,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4.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연방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Base Program)은 다음과 같은 7개 영역이다.

- * 4-H 및 청소년 개발
- * 농업
- * 지역사회 자원 및 경제 개발
- * 가족발달 및 자원관리
- * 지도력 및 자원봉사 개발
- * 자연자원 및 환경 관리
- * 영양, 다이어트, 건강

오하이오주의 경우 1999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수행중인 프로그램 영역은 가정학, 농업 및 자연자원, 지역개발, 4-H개발의 네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가정학 영역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부모교육을 통한 강한 가족의 육성
- *영양, 생활양식, 식품안전의 향상
- *시간, 화폐, 기타 자원의 관리
-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양
- *일과 가족 사이의 다중역할 관리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선 강한 가족의 육성을 위해서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훈육 기법, 인간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투옥중인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 역할 10주 프로그램’,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의 명령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중년이나 노인,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영양 프로그램은 가정학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정부의 식품보조를 받는 가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가족 이외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식품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NEON(Nutrition Education OnLine)은 임신 중이거나 부모가 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웹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화폐관리, 여성의 재무정보, 의류관리, 가계부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수표사용과 가계부기록’ 프로그램은 소비자과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령해서 듣게 하는 프로그램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건강 및 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햇빛에 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미국인 농부들에게 피부암의 위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보존을 위한 가정내 쓰레기 관리 교육 등이 이러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의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영역 중 하나가 다중역할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

업준비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 취업 중 가정관리를 잘 함으로써 일과 가족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오하이오주립대학 가정대학에서는 보급활동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그 전략적 주제가 "Mapping the Future for Ohio Families"이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Building Strong Families in the 21th Century"이다. 이러한 장기주제의 선정은 관련자들에게 목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해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차용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Extension Agent가 한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에서는 말(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관리와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말이 많은 켄터키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다양하다. 보급활동 전문가들은 초기에는 Home Demonstration Agent가 주민의 집을 방문하거나 소규모 집단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Extension Agent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을 집단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교수방법은 1914년과 같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대중매체, 인터넷,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디스켓이나 CD, 출판물, 또는 위성 비디오 회의 일 수도 있다. 팜플렛, 책, 견본 등 여러 가지의 지도자료가 동시에 제공되기도 하며, 실습을 하거나 토론을 하기도 한다. 보급활동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을 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수차에 걸친 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장소는 제한이 없으며, 학교, 지역도서관, 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ohioline"(<http://ohioline.ag.ohio-state.edu>)에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웹의 경우 다른 관련자료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5. 시사점

미국의 경우 보급활동의 역사가 장구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지 않다.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 예산 및 전문가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회의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가정학 분야의 경우 농촌에서 시작된 보급활동이 농촌인구 비율이 극히 미미한 미국사회에서 오늘날에도 이혼, 약물중독, 파산, 미혼모 증가 등 많은 가족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조직과 대학이 협동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보급활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들이 오늘 이 시점의 한국사회에 공헌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계속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그 활용, 지역성에 기반을 둔 실천적 프로그램, 창의력과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직업자세 등은 가족자원관리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때 특히 배우고 싶은 점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의숙(1993), 생활개선활동과 가정학의 과제, *The Proceeding of the 6th Korea-Japan Home Economics Symposium*.
- 홍형욱·최재순(1998), 미국 대학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가 제공하는 Internet상의 주생활정보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69-82.
- Christian, C. F. (1959), *History of Cooperative Extension Work in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in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 Fehlis, C. P. (1992), Urban Extension Programs, *Journal of Extension* 30(2).

- Kraft, G. (1999), Education Reform as Public Policy: A Role for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37(3).
- Maricle, G. L. (1991), Understanding Cooperatives, *Journal of Extension* 29(1).
- Murphy, A., Coleman, G., Hammerschmidt, P., Majewski, K., and Slonim, A. (1999), Taking the Time to Ask: An Assessment of Home Economics Agents' Resource and Training Needs, *Journal of Extension* 37(6).
- 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 (2000), 1999 Annual Report.
- Rasmussen, W. D. (1989), *Taking The University To The People - Seventy-five Years of Cooperative Extension*,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Russell, M. M. (1991), Cooperative Extension and the Land-Grant University: A Futures History, *Journal of Extension* 29(2).
- Schuchardt, Jane and Dinkins, M. (1995),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in a reorganized USDA,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1, 73-76.
- Warner, Paul D. and Christenson, J. A. (1984),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A National Assessment*, Boulder: Westview.